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인간성과 죄,

세션 1, 인간성 교리의 중요성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인간성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세션 1, 인간성과 죄의 중요성.

biblicalelearning.org에서 인간성과 죄의 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당신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를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로버트 피터슨입니다.

저는 개혁된 신앙을 가진 두 개의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35년간 가르쳤지만 확실히 복음주의였고, 두 번째 신학교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였습니다. 저는 은퇴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4시간을 조사, 편집, 글쓰기에 보내는데, 그게 저를 망칩니다.

저는 성인 학습 학교를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RITE(Reformed International Theological Education)라는 사역에서 우크라이나에서 Zoom을 통해 일년에 여러 번 가르칩니다. 저는 또한 Child Evangelism Fellowship의 신학 고문이며,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교리 또는 신학적 인류학에 대한 소개를 한 후, 기술 용어인 인간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교리의 큰 주제이며,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헌법적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은 현대 과학이 분리할 수 없는 영혼이란 없다고 말할 만큼 단일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역사적으로 교회가 말했듯이 영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영혼이라고도 하는 별도의 비물질적 부분을 가진 두 부분입니까? 보통 성경에서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영혼과 영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다른 부분 또는 구성 요소로 구별되는 세 부분입니까? 결론을 예상하기 위해 마지못해 우리는 두 부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진 방식은 단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몸과 영혼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죽은 자의 부활 후에는 영원히 연합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뜻대로 죄의 교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의 교리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성경적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은 소홀히 다루어졌던 주제인 원죄에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원죄 교리에서 우리는 첫 번째 조상 아담, 사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에 대해 배우지만, 원죄는 특히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불리하게 계산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은 그 결과를 알려주지만, 특히 로마서 5:12~19 또는 21을 비롯한 신약까지 기다려야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타락의 영향 중 일부를 간단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히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학*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이 교리의 중요성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조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여러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속적이거나 자연스러운

이미지라고 부를 수 있고, 성경적 묘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별을 가진 남자와 여자입니다. 에릭슨은 맏소사, 40년 전에 기독교 신학 책을 썼고 당시 그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수장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찰스 호지의 체계 신학, 루이스 버코프의 네덜란드-미국 체계 신학, 하몬 보빙크의 위대한 네덜란드 체계 신학이 있었고 영어로 번역된 것은 아마 15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등장했고 그것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와 함께 박사 후 과정을 밟은 것을 포함하여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에릭슨은 매우 명확하고 유용한 책을 썼고, 자신의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 확고하게 복음주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온건하거나 4가지 요점을 가진 칼빈주의자였고, 세례교도였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평했으며, 전천년설이지만 후천년설이었고, 카리스마적이지 않았지만 반대하지 않았으며, 매우 견고한 형제였고, 역사 신학에 특별히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사용했고 특별히 활동적인 자세한 주석가는 아니었지만 성경으로 작업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어쨌든 저는 더욱 개혁적이고 복음적인 학교로 옮겨가기 전 10년 동안 그의 체계적 신학을 사용했고, 그 후 25년 동안은 Berkhoff를 사용했습니다. 인간 교리의 중요성.

따라서 성경 교리와 기독교 신앙 교리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교리는 논의되는 교리일 때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책인 것과 같습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의 경이로움에 그저 놀랐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와우, 어쨌든 문제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교리, 지금 공부하는 교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른 교리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 교리는 인식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것은 나머지 모든 교리에 대한 우리의 교리적 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신과 인간과 죄와 그리스도와 구원과 교회 안의 성령과 마지막 감사에 대한 교리를 성경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 대한 개혁적 이해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성경만이 우리가 사용하는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이성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종류의 전통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전통이 없다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전통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정직하고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 모두 경험에 호소합니다. 따라서 솔라 스크립투라는 전통, 이성, 경험에 대한 호소를 배제하지 않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통, 이성, 경험 및 우리가 가진 다른 권위의 근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것을 완벽하게 한다고 주장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따라서 경전 교리는 인식론적 목적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셨고 경전에 그 계시를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그 필요성에 대한 그의 해결책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존재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교리는 존재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인 현실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자 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교리를 오용하여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것을 한탄합니다. 이런 오류는 계속 생겨납니다. 거의 모든 복음주의자가 보편주의,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견해를 고수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일 것이라고 말하는 글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는 소멸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주장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대가, 벌을 치른 후에 그들은 멸종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최악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사실이 아닙니다. 신은 사랑이시지만, 우리는 그 놀라운 성경적 가르침을 다른 성경적 가르침에 반대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이건 어때요? 저는 사후 신학이 계속해서 복음주의 추종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놀랍고 슬프습니다.

저는 Dallas Seminary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형제의 외부 독서자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그 분야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점점 더 많은 진정한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적 증거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까다로운 구절을 알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다시 언급하지만, 제발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두 번이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약속된 자라고 믿지 않으면 ,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영속되는 거짓된 희망이다.

다시 한번, 그것은 실제로 신의 사랑을 증진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신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요한 1서가 4장에서 신은 사랑이라고 두 번 말하기 전에, 1장에서 바로 신은 빛이시며, 이는 그가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중적 의미가 있고 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문맥상 적어도 그는 빛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진실하지만, 특히 그는 거룩하고 경쟁, 라이벌을 용납하지 않으며, 그는 죄를 벌할 것이고 반드시 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육신, 삶, 죽음, 부활이 없다면 근거가 없고 구원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릭슨은 구원 교리가 실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의 실제적 변화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관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신자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운명에 대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 교리가 특히 중요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리는 다른 주요 기독교 교리와의 관계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간은 신의 지상 피조물 중 가장 높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연구는 신의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성하고, 신 자신에 대한 의미에서, 우리는 창조주가 창조한 것을 보고 창조주에 대해 무언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저는 신약학의 은퇴한 교수인 로버트 C. 뉴먼의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방식과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우리가 바로 그 요점을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창세기 1:26-27).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는 인간에 대한 연구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이미지 미러링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인간 교리는 또한 성경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인 영원한 아들이 진정한 인간 본성을 취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큰 빛을 비춥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본질적인 인간성과 타락 후 실제 존재에서 발견되는 실존적 또는 경험적 인간성을 확실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 신학적 방법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예수의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는 인간이 실제로 무엇이 되도록 의도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행히도 거울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무엇이어서 하는지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교리는 또한 연결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다른 교리를 연구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성육신도, 속죄도, 거듭남이나 칭의의 필요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올바르게 공식화하기 위해 엄청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로 이해되는지에 따라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리에 쏟은 노력은 가치가 있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명백하고 결과적으로 공개적으로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 교리에 쏟는 추가 노력은 특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 교리는 특이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학 학생도 그 대상입니다.

이것은 인류학을 신학, 신에 대한 교리, 그리스도론과 같은 교리와 구별하지만, 물론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구원론과 같은 교리와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류학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신학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신학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신학이 확실히 인간 활동으로 생각되는 정도까지 말입니다. 인간에 대한 교리는 성경적 계시와 인간의 관심사가 수렴되는 지점입니다.

신학은 모든 사람, 또는 적어도 사실상 모든 사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대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서양인은 신이 존재하는지, 나사렛 예수와 같은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또는 그에게 기인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매일 살아가는 실존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동양적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일 것입니다. 즉, 인간이라는 주제는 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는 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과 토론을 시작하면, 듣는 사람의 주의를 얻기도 전에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각적 경험을 초월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에 회의적입니다. 게다가 현대적 정신은 종종 인본주의로 기울어 인간과 인간적 기준을 가장 높은 가치와 관심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이는 종종 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권위 있는 책이 믿음과 행동을 규정한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반권위주의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자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들은 인류에 대한 이해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당시의 일반적인 의견에서 자신의 가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복지와 삶에서의 위치에 관심이 있고 걱정합니다. 따라서 대화가 인류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시작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모든 문화권의 인간은 개인과 집단 모두에서 자신, 문제,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질문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불신자와 토론을 시작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토론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자의 자기 이해에서 제기된 질문은 토론의 시작점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답변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기된 질문은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다시 신의 본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논의가 결국 멀리까지 확대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있는 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교리는 때때로 현대 세속적 포스트-인격이나 포스트-모던 세속적 인격의 마음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한 가지 지점입니다.

적어도 길거리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셋째, 인간에 대한 교리는 다양한 지적 학문이 인간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특히 중요합니다. 인간 본성이나 인간 행동을 주요 관심 대상으로 삼는 학문의 수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동 과학의 이전에 탐구되지 않은 분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학과가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생겨납니다. 새로운 학제간 연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제 및 조직 문제에 집중했던 경영 대학원조차도 인간적 요인을 점점 더 다루고 있으며 그것이 종종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대에서는 의사가 증상이나 질병이나 신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치료한다는 것을 점점 더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진료의-환자 관계의 개인적 차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과 같은 전통적인 행동 과학은 인간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윤리적 문제가 토론의 주요 주제이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주요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50년대의 인종 관계, 60년대의 베트남 전쟁, 70년대의 환경(오늘날까지 이어짐), 80년대의 핵무기 경쟁, 90년대의 범죄.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첫 분기에, 인간의 정체성,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문제가 도처에 있습니다. 질문은 제기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때때로 다소 교조적인 대답으로 대답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교조적인 진술은 도덕적 규범의 기초인 초월적인 신의 대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으로 사람을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종종 매우 격렬한 성격의 정치적 토론은 때로는 숨겨져 있지만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번영이 좋은 교육보다 더 중요한가? 경제적 안정이 선택의 자유보다 더 중시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인간 본성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반면에 불신자들과의 토론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인류를 다루는 우리의 이전 관점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지적인 문제인 사회의 집단적 자기 관심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초점을 맞춘 학문 분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은 다른 관점과 방법론과 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개인과의 매우 개인적인 토론에서와 마찬가지로 학문적 대화에서도 성경 신학의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이해와 신학 외의 관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친숙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른 접근 방식이 인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러한 관점이 신학과 어떻게 비교되고 대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교리는 인간 자기 이해의 현재 위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에릭슨이 그 말을 했을 때, 그는 우리가 오늘날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젊은이들이 성적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충격적이고, 사람들이 나침반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슬픈 일입니다. 바로 기독교 신학이 제공할 수 있는 나침반 말입니다.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한 다양한 최근 사건에 대한 답에 대한 혼란이 있으며, 발전은 이전에 질문에 주어진 많은 답에 의심을 던진다. 한 가지 발전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려는 투쟁이다.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항상 정상적인 성숙, 삶, 가치, 목표에 대한 독립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큰 차원으로 확대된 듯합니다. 우선,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거나, 자신이 생활 방식에서 보여주지 않는 가치관을 옹호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일요 학교에 보내도록 격려했던 친구들은, 오, 아니, 아니, 남편과 아내는 종교적 배경이 다르고, 우리는

아이들이 중립적으로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판단하는 정신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한 달콤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을 불가지론자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도덕적 또는 신학적 중립성이란 없습니다. 당신은 의무가 있거나 없거나,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그 의무를 물려줄 것입니다.

가치의 전통적 원천인 교회, 대학, 국가는 의심스러워졌고, 어떤 경우에는 전통적인 유대-기독교적 가치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기 이해의 위기에 기여하는 두 번째 발전은 역사적 뿌리의 상실입니다. 많은 경우 역사는 비실용적이거나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잃어버린 지식 분야가 되었습니다.

에릭슨이 쓴 이후로, 그것은 공격을 받고 의도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모방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과 시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실히 이해합니다.

사람들과 심지어 온 나라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접촉을 잃고 있습니다. 전통은 버려졌지만, 전통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질문은 인류는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기독교는 그 질문에 답하고, 따라서 우리에게 확실한 정체성을 줍니다.

우리는 신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에 맞서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가장 높은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분은 처음부터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류 전체는 그 시작과 지속적인 존재를 사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뜻과 사역에 빚지고 있습니다.

인간 자기 이해의 위기로 이어지는 최종적인 전개는 국가적 삶에서 외상적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우리 세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치적 암살, 테러, 전쟁, 그리고 매주 미국에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들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인류의 모순은 깊고도 심오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우주 여행과 통신, 정보 처리, 의학의 엄청난 도약을 포함한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듯합니다.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기술은 긍정적인 목적에도 사용되지만, 사악한 목적에도 사용됩니다.

범죄가 증가하고 , 계급과 인종의 긴장과 갈등도 증가합니다. 한편으로 인간은 자신들이 별에 손을 뻗는 거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동물계에서 찾을 수 없는 잔인함을 행할 수 있는 악마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자기 이해는 실제로 위기 지점에 있으며, 집중적인 조사와 신중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이 교리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과 그들의 운명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과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간을 주로 육체적 존재로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그리고 아마도 사실상 유일한 고려 사항은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신체적 충동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을 주로 이성적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주로 그들의 지성에 호소하고 신중하게 준비된 주장과 설명, 그리고 행동과 생각에 대한 합리적인 정당화를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전제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얻는 방법은 그것이 따라야 할 최선의 과정이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교육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실제로 복음의 부흥과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 교육과

동료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주로 감정적 존재로 본다면,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정적 고려 사항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본질적으로 성적인 존재로 본다면, 그들이 만족스러운 성적 적응을 이루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 사역에서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방법의 측면에서, 인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일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인류의 이미지.

앞서 언급한 고려 사항은 인간 교리가 비기독교 세계와의 대화에서 연구하고 활용하기에 특히 적절한 교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나 현대 문화가 묻는 질문을 파악하려면 인간 본성을 다루는 다양한 학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널리 퍼진 인간 개념 중 일부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양한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계입니다. 인간은 동물입니다. 돌아와서 이것들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인간은 성적 존재다. 어머, 오늘은 정말 놀랍다. 놀라울 정도로 흐릿하고 왜곡되고 혼란스럽다.

인간은 경제적 건물이며 회사에 영혼을 파는 존재입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을 별 의미가 없는 우주의 줄로 봅니다. 자유로운 존재는 인간을 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종종 정치적, 사회적 견해에서 드러납니다.

사회적 존재 는 또 다른 선택 입니다 . 사람은 그가 또는 그녀가 관여하는 관계의 집합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인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지만, 그 중 어느 하나와 동일시되거나 동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이미지. 다음 시간에 그걸 다루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하죠. 인간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 후, 다음 강의에서 인간 이미지에 대해 함께 작업해 봅시다.

이것은 인간성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 세션 1, 인간성 교리의 중요성.